

2014

연구보고서-12

I S S U E P A P E R

##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과제책임자 •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수행 과제명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과제책임자  장미혜 연구위원

 Tel: 02-3156-7133

 e-mail: mhchang@kwdimail.re.kr

### 요약

이 연구에서는 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결론적으로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집단별에 따른 교육컨텐츠 개발, 교육강사의 자질향상 등을 통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효과를 높일 것을 제언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장미혜·박건표·전미현·정지연(2014).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 ■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강화 정책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사후 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

### ■ 폭력예방교육의 체계 구축 및 확대

- 2008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 2008년 성매매 예방교육, 2010년 성폭력 예방교육, 20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됨.
-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등 의무 대상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 폭력예방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교육의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수요자인 참여자, 교육 조직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교육을 행하는 강사들과 강사파견단체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현재 활동중인 강사들의 강의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질 높은 강사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현재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해 분석하고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위한 보완점 제시

- 폭력예방교육의 확대를 통해 성평등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전 사회의 참여방법 제시

## 2 조사 및 분석결과

### ■ 폭력예방교육 추진체계

- 2014년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임.
  - 2012년 16,6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함.
  - 2013년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폭력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였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은 위의 16,600개 공공기관 뿐 아니라 68,000여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시행함.
  - 2014년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종류가 증가함.
  - 2014년도부터는 4개의 개별 교육을 따로 시행하거나, 통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폭력예방교육 실시 이후 의무교육 대상기관들은 교육실적을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함.
  - 폭력 유형별로 교육을 실시한 후 통합관리시스템에 계획수립, 교육실시, 교육 참가자, 교육방법, 홍보물 자체제작 등의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2013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적을 보고함.

■ 2013년도 의무대상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및 실적 비교

● 2013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보고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16,600개 기관임.
- 성폭력 예방교육은 위의 16,600개 공공기관, 68,000여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시행하여 총 110,000여개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시행
- 이 중 폭력 유형별 비교를 위해 16,600개 기관을 중심으로 입력 항목들을 비교하여 분석함.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관련 비교 분석

- 성희롱은 16,189건(97.5%), 성매매는 15,802건(95.2%), 성폭력은 15,379건(92.6%) 공공기관에서 예방교육이 기본계획에 포함.
- 폭력예방교육시 기관장 결재건(율)은 성희롱은 전체 15,827건(97.8%), 성매매는 9,823건(62.2%)성폭력은 9,236건(60.1%)임.
- 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성희롱은 9,085건(56.1%), 성매매는 4,836건(30.6%), 성폭력은 5,091건(33.1%)을 예산에 반영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 비교 분석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성희롱은 16,554건(99.7%), 성매매는 16,241건(97.8%), 성폭력은 16,084건(96.9%)으로 세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97%이상으로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횟수는 성희롱은 16,554건으로 실시한 기관의 평균실시 횟수는 1.9회, 성매매는 16,241건으로 실시기관 평균실시 횟수는 1.6회, 성폭력은 16,084건으로 평균1.9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관련 비교 분석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인원(율)은 성희롱 2,275,835명(92.2%), 성매매는 2,226,803명(91.5%), 성폭력은 2,166,900명(90.5%)으로 세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고위직 참여인원(율)은 성희롱은 52,012명(82.1%), 성매매는 49,979명(81%), 성폭력은 26,773명(69.8%)은 종사자 참여율에 비해서는 낮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에 비해 더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세부기관별로 대학·전문대학의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은 성희롱 58.6%, 성매매 57.2%, 성폭력 56.2%로 전체 고위직 참여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턴 및 계약직 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인원(율)은 성희롱은 248,910명(84.8%), 성매매는 238,707명(83.5%), 성폭력은 231,963명(82.4%)으로 종사자 참여율에 비해 낮으나 고위직 참여율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인원(율)은 성희롱은 16,321명(98.6%), 성매매는 15,954명(98.2%), 성폭력은 15,789명(98.2%)로 종사자 참여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교육 방법 관련 비교 분석

- 폭력예방교육 방법 중 전문가 교육을 한 회수(비율)는 성희롱은 14,248회(44.9%), 성매매는 11,420회(44.1%), 성폭력은 13,114회(43.3%)로 나타남.
- 폭력예방교육 방법 중 시청각 교육을 한 회수(비율)는 성희롱은 14,129회(44.5%), 성매매는 11,790회(45.5%), 성폭력은 8,046회(26.5%)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전문가 교육을 한 비율과 비슷하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교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예방교육 방법 중 사이버 교육을 한 회수(비율)는 성희롱은 3,358회(10.6%), 성매매는 2,702회(10.4%), 성폭력은 2,742회(9.0%)로 전문가 교육이나 시청각 교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2013년도 유형별 폭력예방교육의 평가점수 상관관계

#####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의 평가점수 상관관계

- 유형별로 폭력예방교육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중요 항목과 점수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함.
- 상관관계를 위해 투입한 항목은 평가점수, 실시횟수, 직원 참석율,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고위직 참석율, 학생 참석율, 기관장 참석율임.

#### ● 성희롱 예방교육의 평가점수 상관관계

-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실시횟수, 직원 참석율,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고위직 참석율, 학생 참석율, 기관장 참석율 모두 평가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관장 참석율과 실시횟수는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교육이 2회 이상 진행될수록 기관장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성희롱예방교육 평가점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평가점수	1						
2. 실시횟수	.235**	1					
3. 직원 참석율	.577**	.038**	1				
4.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229**	-.014	.283**	1			
5. 고위직 참석율	.101**	-.011	.111**	.288**	1		
6. 학생 참석율	.201**	.045**	.219**	.297**	.164**	1	
7. 기관장 참석율	.076**	-.253**	.186**	.062**	.062**	.068**	1

#### ● 성매매 예방교육의 평가점수 상관관계

-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실시횟수, 직원 참석율,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고위직 참석율, 학생 참석율, 기관장 참석율 모두 평가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원참석율(.736)과 기관장 참석율(.509)은 다른 항목에 비해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남.

〈표 2〉 성매매예방교육 평가점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평가점수	1						
2. 실시횟수	.370**	1					
3. 직원 참석율	.736**	.151**	1				
4.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276**	-.002	.374**	1			
5. 고위직 참석율	.205**	.026**	.228**	.306**	1		
6. 학생 참석율	.191**	.031**	.220**	.268**	.139**	1	
7. 기관장 참석율	.509**	.554**	.056**	-.029**	-.021**	.037**	1

● 성폭력 예방교육의 평가점수 상관관계

-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실시횟수, 직원 참석율,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고위직 참석율, 학생 참석율, 기관장 참석율 모두 평가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직원 참석율과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평가점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성폭력예방교육 평가점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평가점수	1						
2. 실시횟수	.460**	1					
3. 직원 참석율	.768**	.267**	1				
4. 계약직 및 인턴 참석율	.865**	.402**	.827**	1			
5. 고위직 참석율	.378**	.075**	.290**	.358**	1		
6. 학생 참석율	.413**	.131**	.374**	.408**	.446**	1	
7. 기관장 참석율	.139**	.094**	.097**	.117**	.095**	.088**	1



## ■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 ● 학령기 이전 아동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음.
-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폭력이나 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콘텐츠가 부족함.
- 교육 방법 역시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단순 설명보다는 인형극이나 놀이, 노래 등을 통한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나 이들을 위한 전문강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폭력예방교육은 해당기관 외부의 문화센터, 구청, 극단 등에서 (무료)공연을 통한 단체 관람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역시 많음.
-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유아 및 아동들은 폭력예방교육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 ● 학령기 아동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학령기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6개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발달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연령, 또는 학년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및 교수 방법은 부족함.
- 그리고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의 위험과 종류, 폭력을 받아들이는 태도, 대처하는 방법 및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별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보급이 시급함.
- 현재 저학년(1~2학년)의 경우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위험과 관련하여 유괴나 납치 등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주로 배움.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연령이 낮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연령의 아동들보다 더 많고, 반대로 경계심은 더 낮은 경향이 있음.

-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가 시작하는 시기임.
-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은 성교육과 신체교육의 측면에서 몸의 변화와 외모에 대한 지적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래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저학년보다는 더 많이 가르치는 경향이 있음.
- 초등학교 중학년(3~4학년)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중간에 속한 연령대로서 교육내용과 방식이 일부는 저학년과 비슷하고 일부는 고학년과 비슷하나 이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콘텐츠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중학년의 폭력예방교육의 특성과 이들에게 적합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함.

#### ●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다양한 편임.
- 또한 청소년은 아동보다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들 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성, 이로 인한 의사 소통방식의 차이 등 성별 차이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대중매체에 나타난 행동들을 자료로 제공하여 성평등적,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활동은 강사에 의한 교육이 외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 이외에도 체험관 성교육, 청소년 동아리 운영, 또래성교육지도자 과정, 청소년 성문화 캠프, 청소년성문화또래지킴이 사업 등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폭력예방교육은 강의 수강자 및 강사들 공통적으로 반별 대면 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 및 시간의 부족으로 상당수 방송교육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음.

#### ● 교육 수강자로서의 성인 대상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성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음. 이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수강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집단과,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인인 학부모 및 교사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로 폭력예방교육 수강 대상자인 성인들의 경우에도 연령, 집단, 회사 등 다양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인들을 위한 대부분의 폭력예방교육은 회사와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음.
- 기관의 교육 조직 담당자의 입장에서 직장의 성격과 문화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예방강사가 관공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일반 기업의 정서에 맞는 사례를 말하는 경우 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질적인 측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자료는 부족함.
- 또한 직장내 남성과 여성의 비율, 직장 문화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의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를 찾기가 어려움.
-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교육 담당자가 관

- 심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계획한 교육시간보다 적은 시간 강의를 요청하거나 교육 참여자들도 출석 체크만 하고 자리를 뜨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교육을 계획하는 강사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은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나 고령층 등 폭력예방교육을 접할 기회가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는 있으나,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로서의 성인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한편 성인들은 스스로 예방교육의 참여자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존재함. 이들은 주로 학부모들과 교사, 교직원들임.
- 현재 학부모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폭력예방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들이 존재함.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강사를 초빙하여 폭력예방교육을 받기도 함.
- 그러나 학부모들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임. 그러나 초등학교 이후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교사들의 경우 방학 중 교원연수 과정에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연수 이후 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등 저학년의 경우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관계가 친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직접 강의를 효율적이며, 청소년기로 올라갈수록 외부 강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 위험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발견할 경우  
담당교사등 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계  
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의 효율성을 높  
이는 방안이 필요함.

#### ■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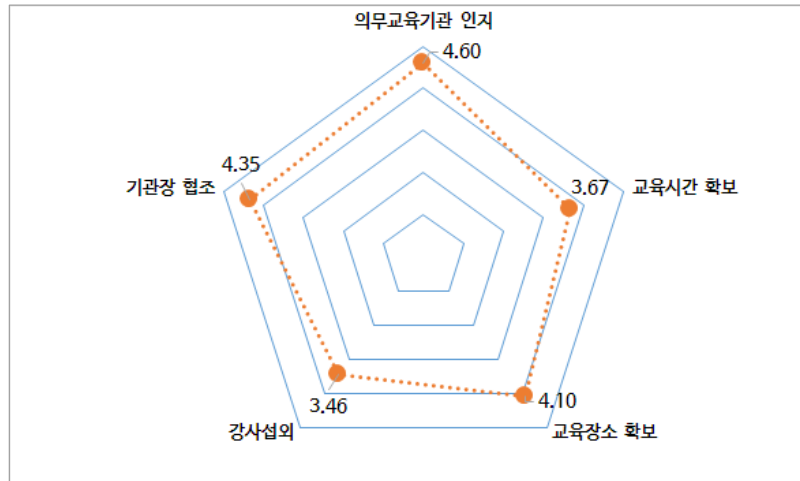
- 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 평가, 교  
육 후 인식 변화, 교육관리 시스템 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

〈표 4〉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방법

모 집 단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관 담당자
표본크기	2,118명
표본추출방법	전수 컨택 후 유효표본 추출(기관별 비례 층화 할당 추출)
표본오차	$\pm 2.0\%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이메일(E-mai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조사기간	2014년 7월 31일 ~ 9월 3일(5주간)
조사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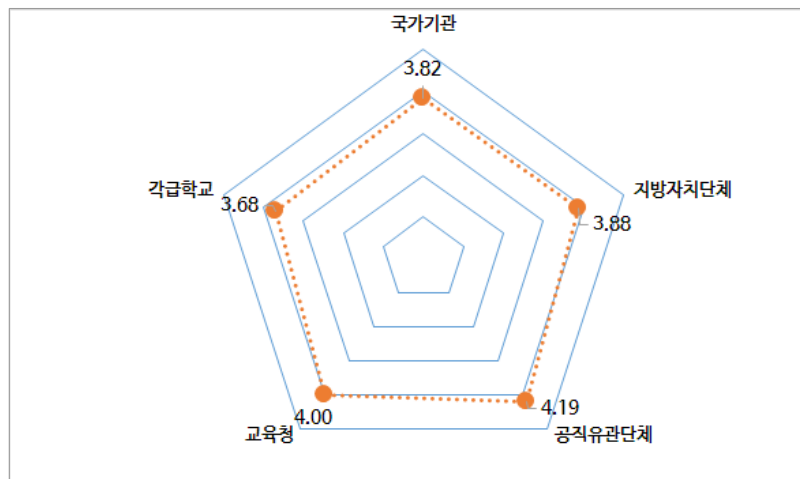
##### ● 폭력예방교육 실시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 총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의무교육기관 인지”는 4.60점, “기관장  
협조”는 4.35점, “강사섭외 용이”는 3.46점, “교육장소 확보”는  
4.10점, “교육시간 확보”는 3.67점으로 나타남.



[그림 1] 문항별 소속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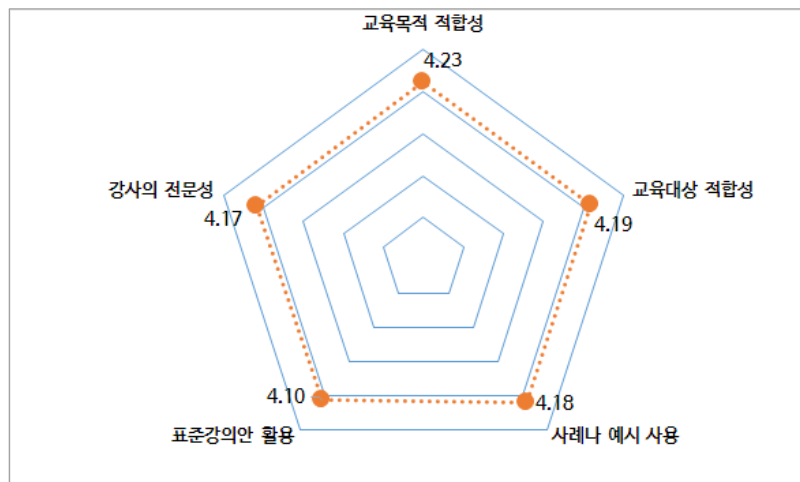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교육실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결과
  - 5점 척도로 구성된 만족도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3.82점, 각급학교는 3.68점, 교육청은 4.00점, 공직유관단체는 4.19점, 지방자치단체는 3.88점을 보임.



[그림 2] 기관유형별 교육실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세부항목별 교육 충실성 결과

-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교육이 충실하였는지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함.
- 그 결과 교육목적 적합성은 4.23점, 강사의 전문성은 4.17점, 표준강의안 활용은 4.10점, 사례나 예시 사용은 4.18점, 교육대상 적합성은 4.19점임.



[그림 3] 항목별 교육 충실성 평가

### 3 정책제언

#### 제안1)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의 다양화

- 폭력예방교육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가능한 다양한 집단을 폭력예방교육에 포함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임.
- 가능한 많은 성인들을 교육함으로써 폭력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폭넓은 집단을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처럼 다양한 계층을 교육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방교육이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의무교육대상자가 받는 교육의 내용을 매년 갱신함으로써 해마다 차별화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순차적으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폭력예방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집단에 맞게 다양화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향후 성폭력예방교육은 대상자 특성, 연령과 생애주기, 직장 내 근속연수(예방교육 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단계별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 교육 참여자의 요구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의 역량과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함.
- 표준강의안을 통해서 강의의 내용과 질을 균질화시키면서 동시에 강사의 재량권을 보장해주어 교육의 내용을 집단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교육참여를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시 대상별 교육요구도 조사를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기관내의 교육담당자가 폭력예방교육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교육담당



자가 적절하게 강의시간을 배정하고 교육과정 전체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역량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2) 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기구와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간의 인프라를 체계화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함.
  -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전담기구의 위상을 관련법에 명문화하여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폭력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및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전담기구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교육 대상 발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지원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함.
-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질높은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강사풀을 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강의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의 수시환류 시스템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폭력예방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상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기관에 대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폭력예방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폭력예방교육 시행후 형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을 부진하게 하는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 특별교육과 기관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확대해야 함.
-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예방대책 수립을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안3) 예방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서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중복된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앙정부는 여성, 가족, 아동 관련 부서들 간의 공동협력 사업 및 지자체 내 타 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일원화하여 대상기관들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정부 부처 간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지원기관과 협력체제 강화를 통하여 지역적,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예방교육의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교육 대상 발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지원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발굴,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4 기대효과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폭력예방교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교육이후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 및 조직의 가부장적 문화 및 관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감수성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실제적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중복되는 사업의 일원화를 통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정부부처 간 협업으로 폭력방지를 위해 중복되는 예산 절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중복되는 예산 절감 효과
-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용이해짐.
  - 정부 부처 간 협업, 민간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서 광범위한 주체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모든 지역사회에서 질높은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함.
- 폭력예방교육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여러 주체들의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해당 주체들간의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사회, 민간단체, 정부 부처 등 참여 주체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장미혜·박건표·전미현·정지연(2014).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